

로마 제국 레스토랑으로 떠나는 '맛깔스러운 문화여행'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외식의 역사

윌리엄 시트웰 지음, 문희경 옮김

“어디서 외식을 하든 그 장소가 불러내는 감흥은 다채롭고 다면적이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대체로 이주민이 들어온 기본 좋은 결과다. 원래는 한 이주민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한 음식으로 들어온 것이다. 1960년대 북미의 일본인 사회나 1940년대 런던 이스트엔드의 방글라데시 이민자 사회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다 그 나라의 주류 사회도 이주민의 음식에 맛을 들이면 정작 그 음식을 들어온 이주민은 팔사하더라도 음식은 즐기면서 자기네 주류 문화의 핵심으로 편입시킨다(영국의 인도 음식처럼).”

외식의 역사는 다름 아닌 사회문화사다. 외식은 당대 사회, 문화가 역사적 맥락과 결부돼 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알게 되면 사회의 특징과 개개인 성장까지도 알 수 있다. 음식에 관한 책은 언제 읽어도 흥미롭다. 하루하루 일상상 사실 무얼 먹는가와 관련돼 있다. 직장인의 공동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이다. 어떤 메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식



당도 달라진다. 가정주부의 일상적인 고민 또한 때때로 마다 어떤 음식을 식탁에 올리느냐이다. 오랜만에 모임을 갖는 사람들은 장소와 메뉴 선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사람들은 평소 접하지 못한 음식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는다. 다시 말해 레스토랑은 외식 문화와 관련돼 있다. 외식(外食)의 사전적 의미는 “집에서 직접 해 먹지 아니하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음”이라는 뜻을 지닌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중 감각으로 색다른 음식을 맛보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다.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작가 윌리엄 시트웰이 펴낸 ‘외식의 역사’는 외식 문화와 레스토랑에 얽힌 맛깔스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레스토랑 평론가이자 해설자인 저자는 ‘100개의 레스토랑 본 음식의 역사’, ‘정말로 괜찮은 영국 요리책’ 등을 펴냈다.

저자는 고대 로마제국의 도시 폼페이에서 번성했던 레스토랑과 여관을 소개한다. 폼페이의 5번가의 프리머스 여관은 단연 인기 있는 장소였다. 도심에서 일하는 다양한 고객을 끌어들였다. 인근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상점 등이 발견되었다. ‘와인 가게와 빵집과 이발소뿐 아니라 식료품점, 청과물 가게, 은행, 사탕가 및 군데, 세탁소, 공중목욕탕’ 등이 그것이다.

19세기 프랑스의 마리 앙투안 카렘은 전문 식당의



1958년 미 캔자스에서 문을 연 최초 피자헛.

음식과 가정식을 구분했다. 오늘날까지도 그가 처음 만든 요리사 모자, 소스 분류법과 제조법이 전해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스에 맞춰 요리를 차려내는 방식을 고안한 점이다. 또한 150년 이상 레스토랑 서비스 경전이 된 책을 여러 권 집필하기도 했다. 전후 미국의 두드러진 변화는 패스트푸드 혁명도 빼놓을 수 없다. 사업가들이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영감을 얻어 주택 건설과 음식 조리에도 적용한 것. 햄버거 가게가 문을 열었으며 새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일어났다. 급속히 증가하는 이민자들에게서 영감을 얻은 조리법도 있었다. 멕시코인의 타코 기계 발명으로 음식문화에 변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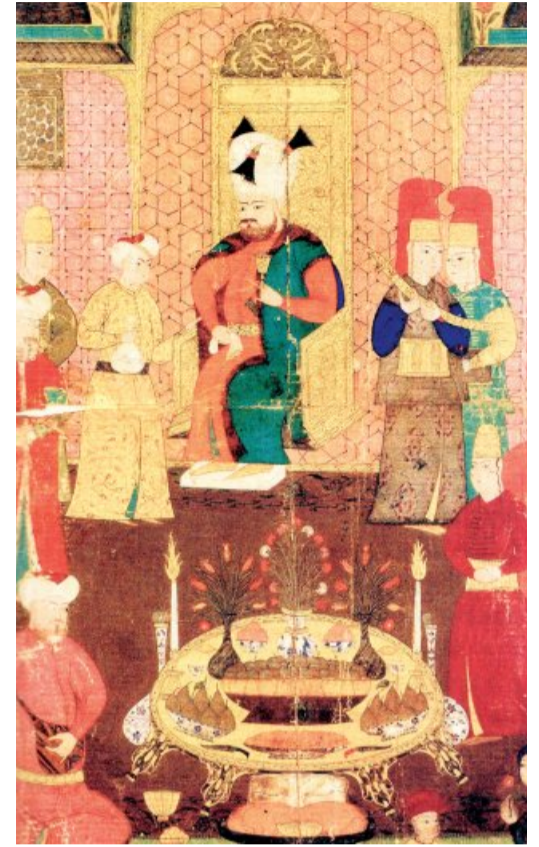
일본의 초밥 산업을 바꾼 이는 시라이시 요시아키다. 그는 접시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벨트를 발명했는데, 일본 문화가 세계로 뻗어 가는데 일조했다. 어느 날 그는 맥주회사 초대로 공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맥주병이 컨베이어벨트에 따라 이동하는 시스템에 매료됐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작은 컨베이어벨트 제작을 의뢰했다. “컨베이어벨트는 정확히 1초에 8센티미터씩 이동합니다… 보면서 어느 접시가 끌리는지 생각해



런던에서 가장 앞서가는 레스토랑이 된 비벡(왼쪽)과 오스만제국 지도자 술탄이 식사했던 둥근 식탁.

기에 최적의 속도죠. 더 느리면 지루하고 더 빠르면 조급해집니다.”

이밖에도 책은 비위생적이고 무질서했던 중세 식사 문화를 바꿔놓은 식탁보 출현, 사교계와 상류층을 위한 공간이자 정치 회합의 장이 됐던 초기의 카페 하우스, 식민주의 체제에서 탄생한 볼베이의 레



스토랑에 관한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한편 박찬일 셰프(음식 칼럼니스트)는 책에 대해 “역사적 식탁의 정교한 재구성, 시니컬한 유머, 당연하지만 음식에 대한 뛰어난 지식”이라고 평한다. <소소의책·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들의 이해관계

임현 지음

2014년 ‘현대문학’ 신인추천 통해 작품활동 시작, 2017년 젊은작가상 대상, 2018년 젊은작가상 수상. 짧은 창작기간이지만 주목을 받는 작가로 성장하고 있는 임현은 첨예한 문제의식과 촘촘한 서사를 펼쳐내는 소설가다.

이번에 임 작가가 펴낸 신작 소설집 ‘그들의 이해관계’에는 모두 9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책에는 문학과지성사의 ‘이 계절의 소설’ (2020년 겨울)에 선정된 ‘거의 하나였던 두 세계’ 등이 포함돼 있다.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자주 다른 사람을 내세우곤 했다. 그럴수록 어쩐지 더 많은 나를 말할 수 있었는데 소설을 쓰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늘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서 누군가를 통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동시성이나 역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가 되어주어야만 했으니까.”

소설보다 ‘작가의 말’이 끌리는 것은 작가의 페르소나가 작품 곳곳에 투영돼 있을 것 같은 호기심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표제작 ‘그들의 이해관계’는 버스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주인공이 우연히 사고를 피했지만 그 대신 경로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버스 기사를 만나는 이야기다. 이들의 서사는 세상은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버스 기사가 “어느 한쪽이 자주 좋아진다는 것은 누군가 나쁜 쪽을 떠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무릎을 치게 한다.

작가는 길으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관계의 상처와 이해 불가능한 삶의 모순과 구조에 특유의 냉철한 시선을 던진다. <문학동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더 리치 탈무드

김정완 외 지음

“부를 끌어오는 유대인의 지혜”라는 부제가 눈길을 잡아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은 유대인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책은 ‘탈무드’로 총 63권으로 돼 있다. 그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유대인의 철학을 담은 책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다. 2500여 년 전 유대인 선조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더 리치 탈무드’는 ‘피르케이 아보트’에 수록된 ‘부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담아낸 책이다. 모두 3명의 인문학자가 부에 관심이 많은, 오늘을 사는 이들을 위해 쓴 탈무드 해설서다. 저자는 최고의 탈무드 개론서로 꼽히는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를 쓴 김간지 기자 출신 김정완, ‘자전거로 세상을 건너는 법’의 저자 이민영, ‘유대인 이야기’의 저자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가.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팔자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저자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는 마음부터 바꾸라고 한다. 삶의 행복과 의미는 스스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부(富) 또한 그러한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저자들은 좋은 습관을 길러 현명하게 투자하라고 권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부를 하면 인생이 위협해지므로 반드시 돈을 버는 직업과 병행하라”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고객을 만족시키는 비즈니스를 하라”, “친구의 말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말라”, “대중에게 칭찬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등의 조언은 젊은 크리에이터들도 실천해야 할 ‘인생 꿀팁’에 해당한다. <행복한북클럽·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셜은난화

찰스 아서 지음, 이승연 옮김

소셜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더 많이 연결되고 더 많이 소통할수록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무서워졌다. 가짜 뉴스를 내세운 선전선동이 퍼져 나가고 분노는 서로를 찌르는 무기가 됐다.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갇혀 건전하고 다양한 소통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거대한 기업들은 이 사태를 방관하며 수익 창출에만 골몰한다.

가디언 출신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저자 찰스 아서는 이러한 흐름에 ‘소셜은난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동명의 책을 펴냈다. 그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기후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소셜미디어로 더 자유롭고 쉽게 표현하고 연결된 탓에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득세하며 사회의 온도를 올려 들끓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하면서 소셜은난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첫 번째 요소는 스마트폰이다. 아이폰 등장 이후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대부분 SNS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사회적 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번째 요소는 알고리즘이다. 사용자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분노와 혐오의 말이 넘쳐난다. 세 번째 요소는 이런 현상에 대한 규제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관리하는 성의를 보일 수는 있지만 통제하지 않는다. 콘텐츠를 노출시켜 광고가 붙게 만드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젯하우스·2만2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록!

NH카드
VISA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 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 쌍촌지점 062)381-6551~2
- 유동지점 062)512-1984~5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농성지점 062)361-4472~4
- 운암지점 062)527-3295~6
- 용산지점 062)526-0222~3
- 화정지점 062)372-0421~3
- 동림지점 062)513-8521~3
- 유덕지점 062)373-3235~6
- 지평지점 062)381-8212~3
-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둥운지점 062)528-2640~2
- 비틀지점 062)381-1971~2
- 운천지점 062)371-2772~3